

이해득실 상황에 따른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 -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

전 우 병

김 시 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들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가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선행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객관적 지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198명), 교도관(132명), 재소자(186명)들에게 연구자가 설정한 높은 이해득실 상황과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타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21개 언어·비언어적 특징들이 평상시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가 달라지지 않았고, 집단 간에도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해득실 상황이나 집단과 관계없이, 언어적 단서는 신뢰롭게 보이려고 하는 반응, 비언어적 단서는 불안함을 나타내는 반응과 관련된 단서들이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로 나타났다. 또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말주저, 시선회피, 몸 움직임 등에서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18개 단서에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토대로 타인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거짓말 탐지 단서,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 교신저자 : 김시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Tel : 031) 249-9194, E-mail : mind@kyonggi.ac.kr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 거짓말의 결과는 상황과 대상자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이거나 또는 관계를 오히려 호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 거짓말의 결과는 사건을 해결해야 할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체 수사활동의 85%를 목격자 진술확보, 피해자 면담, 용의자 탐문 활동 등을 포함한 면담 활동을 해야 하는(Rand Corporation, 1975) 수사관은 이 과정에서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능한 한 정확히 탐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잘못된 수사선 설정으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수사 면담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진술의 진위 판단은 실제로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거짓말을 할 때 수반되는 여러 특징에 대하여 수사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수사관의 판단은 정확할 수도 아니면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 능력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참 진술과 거짓 진술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거짓 진술과 참 진술 간을 구별하는 정확률은 60%이하였다(Kraut, 1980; Vrij, 2000). 이것은 50%의 우연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인상적이지 않다. 이와 같이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Vrij(2000)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o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와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거짓말 탐

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라 함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참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차이를 말하며,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차이에 대하여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즉,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특징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추측된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Vrij(2000)는 거짓말을 나타내는 행동특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과 실제 거짓말을 할 때 참말을 하는 사람과 구분되는 행동차이(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일치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거짓말 탐지 정확률은 높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거짓말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의 기본 전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시선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단서), 이 단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시선회피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참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서로 차이가 없는 행동특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단서), 따라서 시선회피라는 주관적 단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거짓말 탐지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의 연구들은 한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대학생, 법집행 종사원(경찰관, 세관원, 교도관 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 결과, 연구가 실시된 국가와 대상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언어·비언어

적 행동간의 관계성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국가간, 평정자간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Zuckerman, Koestner, 그리고 Driver(1981)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동안 높은 목소리, 말실수, 말주저, 말속도, 움직임(부연설명동작, 손/손가락 움직임, 발/다리 움직임, 몸 움직임, 자세바꾸기 등을 포함) 등이 증가한다고 믿고 있으며, 시선접촉, 미소, 답변지연시간(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사이의 시간공백) 등은 감소한다고 믿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알아 본 연구들은 대부분 질문지를 사용하여 Zuckerman 등(1981)의 메타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증가하고(조은경, 이미선, 김재홍, 2005; Akehurst, Köhnken, Vrij, & Bull, 1996; Gordon, Baxter, Rozelle, & Druckman, 1987; Vrij & Semin, 1996), 시선회피가 증가하며(조은경 등, 2005; Gordon et al., 1987), 불안함과 관련된 언어와 준언어적 행동이 증가하고(조은경 등, 2005; Fiedler & Walka, 1993), 말주저와 말실수가 증가할 것(조은경 등, 2005; Akehurst et al., 1996; Vrij & Semin, 1996)으로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 대부분은 초조함(nervousness)의 신호들이다(Vrij, 2000). 즉,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초조해 하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연구들

은 이와는 정반대의 패턴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시선접촉에 변화가 없었고(김시업, 전우병, 김경하, 김미영, 전충현, 2005; Vrij, 1995), 움직임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다(Ekman, 1988; Vrij, 1995, 2000; Vrij et al., 1996). 따라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특성들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실제로 나타나는 객관적 지표들은 서로 차이가 있었고, 그 방향에 있어서 정반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짓말과 관련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은 크게 세 가지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Lakhani & Taylor, 2003). 먼저, 정서적 가설(Ekman, 1988, 1992)은 거짓말이 정서적으로 흥분을 유발하는 행동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흥분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신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Ekman(1988, 1992)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말은 죄책감이나 발각의 두려움 또는 속이는 즐거움(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존재로서의 흥분) 등의 정서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이 가설은 거짓말 행동이 움직임, 말주저나 말실수, 시선회피 등의 소위 '초조한 행동'들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두번째, 인지적 가설(Ekman, 1992)은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높은 인지적 부담(high cognitive load)을 수반한다고 가정한다. 즉,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인지적 부담을 나타내는 신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인지적 부담으로 인해서, 말주저, 반응지연시간 등이 증가하고, 말속도가 느려지는 행동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Goldman-Eisler, 1968). 또한, 인지적 부담은 거짓말의 언어적 내용에 집중함으

로써 비언어적 행동을 신경쓰지 못하게 되어, 신체 움직임과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행동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통제 가설(Köhnen, 1989)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초조한 행동이 주게 될 인상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설득력있게 보이려고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것으로 예측한다. 즉,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행동을 과잉 통제하게 되어, 비언어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제 가설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 움직임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토대로 거짓말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비교해보면, 거짓말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정서적 가설로, 객관적 지표는 인지적 가설이나 통제 가설로 잘 설명될 수 있다(Lakhani & Taylor, 2003). 즉, 거짓말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정서적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움직임, 말주저나 말실수, 시선회피 등의 소위 '초조한 행동'들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짓말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은 인지적 가설이나 통제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신체 움직임과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먼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나타나는 이해득실 상황(stake situations)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실제로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알아 본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이유를 Vrij(2000)는 이해득실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실험실 안에서 인위적인 거짓말 상황을 조작함에 있어서 이해득실 수준을 서로 상이하게 조작함으로써 일관되지 못한 객관적 지표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성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나 실패함으로써 자신이 겪어야 할 손실이 클 때 높은 이해득실 상황이라고 하고, 거짓말의 성공여부에 따라 얻게 되는 이득이나 손실이 비교적 적은 상황을 낮은 이해득실 상황이라고 정의하면,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정서적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고(Ekman, 1992),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정서적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롭게 보이려는 행동이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는 인지적 노력을 할 여유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했던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인지적 가설이나 통제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신체 움직임과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낮은 이해득실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성공해야 한다는 동기력이 더 커지고, 이럴수록 발각의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불안감이 더 커짐으로써 자신의 비언어적 행동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 비언어적 행동들이 탐지되기가 더 쉽게 된다(동기손상

효과; motivation impairment effect)(DePaulo, Lanier, & Davis, 1983; DePaulo & Kirkendol, 1989; DePaulo, Kirkendol, Tang, & O'Brien, 1988). 실제로,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발각의 두려움과 관련된 행동특성들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Frank & Ekman, 1997). DePaulo, Lindsay, Malone, Muhlenbruck, Charlton, 그리고 Cooper (2003)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 158개에 대한 1,338개의 측정치를 메타분석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불안과 긴장이 증가하고,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눈깜박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김시업 등(200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해득실 상황을 연출하였을 때(중간고사 부정행위에 대한 거짓말), 높은 목소리, 말주저, 눈깜박임, 부연설명 동작, 몸움직임 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정서적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은 행동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정서적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은 객관적 지표들이 나타난다면,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은 높은 이해득실 상황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거짓말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질문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자신의 기

역을 토대로 응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거짓말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토대로 질문에 답하게 된다. 이런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 중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짓말 상황(salient information)을 토대로 응답을 하게 되며, 이 상황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보다는 높은 이해득실 상황이 되기가 더 쉽다(Lakhani & Taylor, 2003). 그러므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낮은 이해득실 상황보다는 높은 이해득실 상황으로 고려한 응답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들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거짓말 상황이 각기 다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거짓말 단서에 대한 응답은 개인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높은 이해득실 상황과 낮은 이해득실 상황), 이런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발각의 두려움이 커짐으로써 정서적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근거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정서적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롭게 보이려는 행동이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는 인지적 노력을 할 여유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지나 통제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남에게 신뢰롭게 보이려는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평정할 것으로 추측해 본다. 즉, “높은 이해득실 상황은 정서적 가설

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불안 행동이 증가하는 주관적 지표가 나타날 것이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통제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비언어적 행동 단서들이 억제되는 주관적 지표가 나타날 것이다”(가설 1).

이와 관련하여, 이해득실 상황이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단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Taylor와 Vrij(2000)는 이해득실 상황이 진술의 신뢰성을 높히려는 언어적 행동들에만 영향을 미치고, 비언어적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해득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불안한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면, 이해득실 상황이 비언어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응답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Taylor와 Vrij(2000)의 연구는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상황들 간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득실 상황의 조작이 응답자들에게 두드러진 것이 아닐 수 있다(Lakhani & Taylor,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해득실 상황의 차이를 쉽게 인식시키고자 피험자내 설계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설계에서 응답자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낮은 이해득실 상황보다는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더 불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서로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및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거짓말 단서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을 연구한 대다수 연구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Vrij, 2000). 그러나, 거짓말 탐지가 업

무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관, 판사, 세관원 등 전문적인 거짓말 탐지자들은 거짓말 탐지 경험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짓말 단서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객관적 지표들과 일치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간에 매우 유사한 주관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조은경 등, 2005; Akchurst et al., 1996; DePaulo et al., 2003; Strömwall & Granhag, 2003; Vrij & Semin, 1996). 이와 같은 거짓말 탐지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은 피드백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피드백 가설에 따르면, 단순히 진실성만을 판단하는 경험은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DePaulo & Pfeifer, 1986; Ekman & O'Sullivan, 1991; Vrij, 2000; Vrij & Semin, 1996).

특히, Einhorn(1982)은 경험학습에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타당한 의사결정 규칙을 학습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관원, 경찰관 등은 거짓말 단서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을 토대로 거짓말 탐지에 성공했던 경험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만 타당한 이론을 정립하게 되며, 이와 같이 부정확한 단서들을 근거로 밀수 용의자나 사건 용의자의 거짓말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이 우연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주관적 지표들은 경험을 통해서 수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에서 피드백이 갖는 효과를 연구한 Porter, Woodworth,

그리고 Birt(2000)는 즉각적이고 신뢰로운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 단서에 대한 신념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소위 거짓말 탐지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들보다 거짓말 탐지를 더 자주, 더 많이 해야하는 직업상 특징 때문에 일반인 집단보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거짓말 탐지에서 더 정확하리라고 예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거짓말 탐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폴리그래프 전문가들조차 의뢰된 사건의 진위여부 만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린 진위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은 공식적으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주 가끔씩,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매우 오래 경과된 이후, 즉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전문가들조차 거짓말 탐지의 경험이 정확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정규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받고, 이것을 토대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와 일치되는 정확한 신념을 갖는 집단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Vrij와 Semin(1996), Granhag, Andersson, Strömwall, 그리고 Hartwig(2004)는 재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재소자들은 일반인들 보다 더 기만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속에서 재소자들은 속임수 전략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소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방심하지 말아

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각을 갖게 할 것이고, 여러 번의 사건 신문을 경험하면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타인을 속이는 데 유용한 속임수 전략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쌓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교도소 수감자들은 소위 거짓말 전문가 집단(세관원, 경찰 수사관, 순찰경관, 교도관)이나 일반인(대학생)들보다 거짓말과 비언어적 행동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들, 거짓말 탐지 전문가 집단, 재소자들이 거짓말 단서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거짓말 탐지 전문가로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교도관들이 다른 여타 거짓말 탐지 전문가들(경찰관이나 세관원 등)보다 거짓말 판단에 대한 더 많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과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수감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를 통해서 거짓말의 진위 판단을 하게 되고, 이 판단의 결과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예를 들어, 약물과 같은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수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수감된 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른 거짓말 탐지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들보다 거짓말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집단 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다(가설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 하여(높은 이해득실 상황과 낮은 이해득실 상황),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두 번째,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 이상의 결과를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오류를 발생시키는 잘못된 판단근거, 즉 잘못된 주관적 지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두 곳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과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처리된 응답자들은 대학생 198명(38.4%), 교도관 132명(25.6%), 재소자 186명(36.0%) 등, 전체 516명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남자가 140명(70.0%), 여자는 58명(29.3%)이었으며, 교도관의 경우는 남자가 186명(98.5%), 여자가 2명(3.3%) 이었고, 재소자의 경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상과 같이 각 집단간 성별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분석은 하지 않았다.

각 집단 간 평균 연령은 대학생이 24.6세(표준편차, 2.79), 교도관 36.4세(표준편차, 9.41), 재소자 36.9세(표준편차, 9.21)로 나타났으며,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13)=158.97, p=.000$). 또한 사후 검증 결과, 각 집단의 연령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검증에서 연령변인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재소자의 전과는 1범에서 18범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범이 50.5%였고, 2범은 19.4%, 3범 이상은 30.1%였다. 또한, 재소자의 주요 범죄유형은 사기가 54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절도 46명(24.7%), 강도 및 폭력 22명(11.9%), 교통사고 18명(9.7%), 약물관련 14명(7.5%)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경제사범 8명(4.3%), 병역법 12명(6.5%), 성범죄 2명(1.1%), 기타 10명(2.2%) 등이었다.

측정 도구

먼저, 설문지의 평가는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탐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즉, 거짓말 탐지자로서 타인의 거짓말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을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낮은 이해득실 상황과 높은 이해득실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표 1. 참조), 그 상황에서 타인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언어 및 비언어적 특징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21개 특징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과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의 거짓말 행동 특징을 모두 평정하였다(피험자내 설계). 응답자들이 평가해야 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 특징은 기존의 거짓말 단서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단서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4개의 언어적 단서와 17

표 1. 높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의 예시

이해득실 상황	구체적인 예시 상황
낮은 이해득실 상황	<p>A씨는 전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만취 상태로 새벽에서야 집으로 귀가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늦잠을 잤고, 부랴부랴 출근을 하였으나 이미 회의가 끝나버린 다음에야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p> <p>이 때 A씨는 상사에게 불려가서 지각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A씨는 적당한 지각 사유를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였다.</p> <p>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평상시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높은 이해득실 상황	<p>B씨는 전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만취 상태로 새벽에서야 집으로 귀가 하였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들이 받았고, 그 사람은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었다. B씨는 아직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지만 모든 사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으나, 주변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놔둔채 도망을 쳤다.</p> <p>이후,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탐문 수사가 이루어져 B씨도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때 B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이 때 B씨는 평상시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p>

표 2. 거짓말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단서

언어적 단서(4개)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자세히 말하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믿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기
비언어적 단서(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언어적 단서(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 크기, 말더듬는 정도, 말주저(말하는 사이 ‘아’ 또는 ‘음’ 거리는 정도), 말실수, 말멈춤 - 얼굴표정(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회피, 웃음, 눈깜박임, 혀를 내밀거나 입술을 깨무는 것 - 움직임(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만짐, 부연설명동작, 손/손가락의 움직임, 발/다리의 움직임, 머리움직임, 몸움직임, 자세바꾸기 - 답변지연시간(질문과 대답사이의 지연시간)

개의 비언어적 단서로 전체 21개의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 21개의 구체적인 단서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정 방법은 21개의 단서 각각에 대하여 평

상시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 척도는 ‘평상시보다 매우 줄어든다’, ‘변화가 없다’, ‘평상시보다 매우 늘어난다’와 같이 양극단과

중간 점만을 제시하여, 평상시와 변화가 없는 것을 중심으로(0점) 거짓말할 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점, 2점, 3점을 평정하게 하였고, 그 반대로 평상시보다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 -2, -3점을 평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0점은 평상시와 차이가 없고, +값은 평상시보다 증가하며, -값은 평상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이해득실의 상황(높고, 낮음; 피험자내 설계)에 따라 각 집단(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피험자간 설계)이 평정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단서들의 평정점수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연령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21개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 단서들에 대하여 반복측정 ANCOVA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SPSS 13.0으로 처리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 1: ‘응답자들은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정서적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불안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것이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통계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비언어적 행동 단서들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와 가설 2: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집단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다를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이해득실 상황(높고, 낮음; 피험자내 설계)과 집단(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피험자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연령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21개의 거짓말 단서들에 대한 평정치에 대하여 반복측정된 ANCOVA를 실시하였다.

이해득실이 높고 낮은 상황에 따른 각 집단의 거짓말에 대한 주관적 지표 차이

먼저, 이해득실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요약해 보면, 답변지연시간(낮은 이해득실 상황(M=.499, SE=.084), 높은 이해득실 상황(M=.774, SE=.082); F(1, 512)=3.71, p=.007)이 있었고, 5개의 준언어 단서 중에서는 말을 더듬는 정도(낮은 이해득실 상황(M=.304, SE=.071), 높은 이해득실 상황(M=.755, SE=.072); F(1, 512)=4.86, p=.009), 말멈춤(낮은 이해득실 상황(M=.550, SE=.063), 높은 이해득실 상황(M=.893, SE=.065); F(1, 512)=17.77, p=.000) 등 2개의 단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얼굴표정 단서에서는 시선회피(낮은 이해득실 상황(M=.830, SE=.074), 높은 이해득실 상황(M=1.196, SE=.068); F(1,512)=4.82, p=.029)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7개의 움직임 단서에서는 머리 움직임(낮은 이해득실 상황(M=.415, SE=.044), 높은 이해득실 상황(M=.601, SE=.054); F(1,512)=4.63, p=.032)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의 언어적 단서에서는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온 단서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21개의 언어 및 비언어적 단서들 중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평정을 받은 단서는 5개 밖에 없었고, 이 5개의 단서 모두 높은 이해득실 상황이 낮은 이해득실 상황보다 더 많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모두 +점수로 이해득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불안 행동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정서적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불안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할 것이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통제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비언어적 행동 단서들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표 3과 표 4의 각 집단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 진다.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나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의 모든 비언어적 단서들(목소리 크기를 제외한)은 +점수를 받고 있고, 언어적 단서들은 -점수를 받고 있어, 이해득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거짓말을 할 때 불안 행동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집단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단서들을 살펴보면(각 집단의 평정치는 표 3과 표 4의 평균값임), 답변지연시간(대학생 .923(.126), 교도관 .652(.137), 재소자 .334(.119); $F(2, 512)=5.09, p=.006$)이 있었고, 5개의 준언어적 단서들 중 말주저(대학생 1.006(.099), 교도관 .696(.107), 재소자 .499(.093); $F(2, 512)=5.91, p=.003$), 말실수(대학생 1.167(.098), 교도관 .681(.107), 재소자 .5654(.092); $F(2, 512)=8.68, p=.000$) 등 2개의 준언어적 단서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4개의 얼굴표정 단서에서는 눈깜박임(대학생 .918(.087), 교도관 .724(.095), 재소자 .546(.082); $F(2, 512)=4.14, p=.017$)에 대해서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7개의 움직임 단서에서는 손/손가락 움직임(대학생 .994(.090), 교도관 .750(.097), 재소자 .572(.084); $F(2, 512)=4.97, p=.007$), 발/다리 움직임(대학생 .815(.085), 교도관 .498(.092), 재소자 .511(.080); $F(2, 512)=3.51, p=.031$), 부연설명동작(대학생 .906 (.089), 교도관 .899(.097), 재소자 .608 (.084); $F(2, 512)=3.85, p=.022$) 등의 3개의 단서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개의 언어적 단서에서는 논리정연하게 말하기(대학생 -.663(.116), 교도관 -.109(.127), 재소자 -.179(.110); $F(2, 512)=5.23, p=.006$)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 가설 2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21개의 언어 및 비언어적 단서들 중 집단간 유의미하게 다른 평정을 받은 단서는 8개 밖에 없었고, 나머지 13개의 단서들에서는 집단 간 평가가 비슷하였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단서들 중, 논리 정연하게 말하기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외 다른 모든 단서는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모든 단서들에서 증가·감소의 크기는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에 서로 상반된 평가, 즉 거짓말의 단서 행동이 평상시보다 감소한다면가 아니면 증가한다는 평가를 했던 경우는 없었고, 모두가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불안행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그 정도에 있어서만 일부 단서들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집단 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이해득실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단서들은 웃음($F(2,$

표 3.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타인들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언어·비언어 특징에 대한 각 집단의 주관적 지표 차이 검증표

	대학생(n=198)	교도관(n=132)	재소자(n=186)	F	p	M(SE)
답변지연시간	.788(.156)	.403(.169)	.305(.147)	2.219	.110	
목소리 크기	-.930(.139) ^{ac}	-.260(.151)	-.460(.131)	4.786	.009	
말더듬는 정도	.410(.132)	.308(.144)	.194(.124) ^{ns}	.619	.539	
말주저	.832(.124) ^{ac}	.537(.135)	.357(.117)	3.279	.038	
말실수	.991(.122) ^{abc}	.440(.133) ^{ba}	.494(.115) ^{ca}	4.813	.008	
말 멈추는 행동	.770(.117)	.483(.127)	.397(.110)	2.306	.101	
시선회피	1.047(.138)	.769(.150)	.673(.130)	1.649	.193	
웃음	.234(.142)	.034(.154) ^{ns}	.233(.133) ^{ns}	.631	.533	
얼굴만짐	1.017(.112)	.871(.122)	.750(.105)	1.282	.279	
눈깜박임	.872(.099)	.734(.107)	.562(.093)	2.323	.099	
혀내밀기	.434(.089)	.325(.097)	.394(.084)	.320	.727	
손/손가락 움직임	.905(.103)	.687(.112)	.581(.097)	2.212	.111	
발/다리 움직임	.647(.090)	.478(.098)	.520(.085)	.740	.477	
머리 움직임	.401(.083)	.451(.090)	.393(.078)	.143	.867	
몸 움직임	.539(.083)	.498(.090)	.514(.078)	.048	.953	
자세 바꾸기	.642(.086)	.582(.093)	.485(.081)	.824	.439	
부연설명동작	.758(.110)	.748(.119)	.748(.103)	.002	.998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746(.134) ^{ab}	-.214(.146) ^{ns}	-.313(.126)	3.456	.032	
자세히 말한다	-.165(.140) ^{ns}	-.077(.152) ^{ns}	.047(.132) ^{ns}	.547	.579	
기억나지 않는다	.100(.117)	.399(.127)	.245(.110) ^{ns}	1.324	.267	
설득력있게 말한다	.354(.151)	.285(.164) ^{ns}	.400(.142)	.155	.856	

* 공변인 연령=32.039 값으로 평가된 수정된 평균값임

ns: 각 집단별(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로 one-sample t-test를 했을 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언어·비언어적 특징임

abc: 사후검증결과 대학생(a), 교도관(b), 재소자(c)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간을 표시한 것임

512)=16.54, p=.001), 부연설명동작(F(2, 512)=8.56, p=.006),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F(2, 512)=5.24, p=.006) 등 3개 단서였다.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웃음에 대하여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교도관들만이 평소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두 집단은 평상시보다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표 4.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타인들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언어·비언어 특징에 대한 각 집단의 주관적 지표 차이 검증표

	대학생(n=198)	교도관(n=132)	재소자(n=186)	F	p
답변지연시간	1.057(.153) ^{ac}	.901(.167) ^{bc}	.364(.144) ^{cab}	5.690	.004
목소리 크기	-.088(.152) ^{ns}	.051(.165)	-.050(.143) ^{ns}	.196	.822
말더듬는 정도	.928(.134)	.784(.146)	.553(.126)	1.920	.148
말주저	1.181(.119) ^{ac}	.855(.129)	.642(.112) ^{ca}	4.621	.010
말실수	1.343(.121) ^{ac}	.922(.132)	.637(.114) ^{ca}	7.600	.001
말 멈추는 행동	1.003(.121)	.931(.131)	.744(.114)	1.224	.295
시선회피	1.405(.126)	1.189(.137)	.994(.119)	2.422	.090
웃음	-.934(.143) ^{abc}	-.093(.155) ^{ba}	-.133(.135) ^{ca}	8.642	.000
얼굴만짐	1.041(.119)	.849(.130)	.655(.112)	2.389	.093
눈깜박임	.965(.105) ^{ac}	.715(.115)	.530(.099) ^{ca}	3.820	.023
혀내밀기	.620(.104)	.423(.114)	.308(.098)	1.991	.138
손/손가락 움직임	1.082(.113) ^{ac}	.812(.123)	.562(.106) ^{ca}	4.821	.008
발/다리 움직임	.982(.113) ^{abc}	.517(.122) ^{ba}	.501(.106) ^{ca}	4.672	.010
머리 움직임	.546(.101)	.633(.110)	.626(.095)	.178	.837
몸 움직임	.602(.103)	.575(.112)	.488(.097)	.338	.714
자세 바꾸기	.809(.106)	.770(.116)	.679(.100)	.391	.677
부연설명동작	1.053(.124) ^{ac}	1.050(.135) ^{bc}	.467(.117) ^{cab}	7.832	.000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581(.143) ^{abc}	-.004(.155) ^{nsba}	-.045(.135) ^{nsca}	3.963	.020
자세히 말한다	-.119(.146) ^{ns}	.176(.159) ^{ns}	.217(.138) ^{ns}	1.269	.282
기억나지 않는다	1.026(.137) ^{ac}	.665(.149)	.350(.129) ^{ca}	5.484	.004
설득력있게 말한다	.324(.149)	.468(.162)	.322(.141)	.301	.740

* 공변인 연령=32.039 값으로 평가된 수정된 평균값임

ns: 각 집단별(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로 one-sample t-test를 했을 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언어·비언어적 특징임

abc: 사후검증결과 대학생(a), 교도관(b), 재소자(c)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집단간을 표시한 것임

는 세 집단 모두 평상시보다 줄어든다고 평가하였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줄어 들것으로 평가하였고(-.934), 재소자(-.133)는 중간정도, 교도관은 가장 적은 정도(-.093)로 줄어 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의 각 집단 간 웃음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512)=8.64, p=.000).

또한, 부연설명동작에 대한 평가는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대학생 .758(.110), 교도관 .748(.119), 재소자 .748(.103); $F(2,512)=.00$, $p=.998$),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대학생 1.053(.124), 교도관 1.050(.135), 재소자 .467(.117); $F(2,512)=7.83$, $p=.000$), 대학생과 교도관들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 비해서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부연설명동작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재소자들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 비해서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부연설명동작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단서에 대한 평가는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재소자들 만이 평상시와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두 집단은 평상시보다 약간 더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대학생 .100(.117), 교도관 .399(.127), 재소자 .245(.110); $F(2,512)=1.32$, $p=.267$),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대학생 1.026(.137), 교도관 .665(.149), 재소자 .350(.129); $F(2,512)=5.48$, $p=.004$),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그 다음 교도관이 중간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재소자들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각 집단의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과 객관적 지표들간의 비교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객관적 지표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해득실의 상황에 따라 각 집단이 평정한 평균값을 one-sample t-test를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단서들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로 하여 각 집단이 상황에 따라 다른 주관적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는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 158개에 대한 1,338개의 측정치를 메타분석한 DePaulo 등(2003)의 결과와 김시업 등(2005)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해득실 상황을 설정해서 연구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상호 비교해 보았다.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이해득실 상황 하에서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로 나타난 단서들을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경우 자세히 말하기는 평상시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소리 크기와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등은 평상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단서들은 모두 평상시보다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정도에 있어서 시선회피와 얼굴만짐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웃음,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자세히 말하기, 설득력있게 말하기 등에서 평상시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 크기는 감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평상시보다 증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소자들은 말더듬는 정도, 웃음, 자세히 말하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등은 평상시와 변화가 없고, 목소리 크기는 감소하며, 나머지 단서들은 증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목소리 크기, 자세히 말하기 등에서 는 평상시와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하였고, 웃음은 평상시보다 감소하고 나머지 행동에 있어서는 증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표 5.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들간의 비교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		
	낮은 이해득실 상황			높은 이해득실 상황			DePaulo 등		김시업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비범죄	범죄	(2005)
질문과 대답사이	<	<	<	<	<	<	=	=	=
목소리 크기	>	>	>	>	=	=			<
말더듬는 정도	<	<	<	<	<	<			
말주저	<	<	<	<	<	<	=	=	<
말실수	<	<	<	<	<	<			=
말 멈추는 행동	<	<	<	<	<	<	=	=	=
시선회피	<	<	<	<	<	<	=	=	<
웃음	<	=	=	>	=	=			<
얼굴만짐	<	<	<	<	<	<			=
눈감박임	<	<	<	<	<	<	=	<	>
혀내밀기	<	<	<	<	<	<			
손/손가락 움직임	<	<	<	<	<	<			=
발/다리 움직임	<	<	<	<	<	<	=	>	=
머리 움직임	<	<	<	<	<	<			=
몸 움직임	<	<	<	<	<	<			<
자세 바꾸기	<	<	<	<	<	<			=
부연설명동작	<	<	<	<	<	<			>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	=	=	=	=	<			
자세히 말한다	=	=	=	=	<	<			
기억나지 않는다	<	<	=	<	<	<			
설득력있게 말한다	<	=	<	<	<	<			

< : 거짓말할 때 더 증가함

> : 거짓말할 때 더 감소함

= : 평상시와 차이 없음

빈칸 : 해당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서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관들은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자세히 말하기 등에서 평상시와 변화가 없고, 웃음은 줄어들고, 나머지 단서들은 모두 증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들은 목소리 크기,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자세히 말하기 등에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웃음은 감소하며, 나머지 단서들은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준언어적 단서인 목소리 크기, 얼굴 표정에 있어서 웃음, 그리고 언어적 단서 중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자세히 말하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설득력있게 말하기 등 6개 단서들에 대하여만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집단 간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5개의 단서들은 세 집단 모두 이해득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평상시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모두 이해득실 상황과 관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비언어적 행동 단서에서는 정서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불안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자세히 말하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설득력있게 말하기 등 모든 언어적 단서에서 평상시와 차이가 없거나 증가한다고 평가함으로써 불안한 행동을 나타내기 보다는 통제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설득력있게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언어·비언어적 단서의 객관적 지표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가능한 각 단서들을 보면, 객관적 지표들과 주관적 지표들간에 서로 일치하는 단서들은 말주저, 시선회피, 몸 움직임

뿐이었고, 나머지 18개 단서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소리 크기, 눈깜박임, 부연 설명동작 등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김시엽 등(2005)의 객관적 지표와 정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다리 움직임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DePaulo 등(2003)의 범죄 상황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목소리 크기, 눈깜박임, 부연설명동작, 발/다리 움직임 등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말주저, 시선회피, 몸 움직임 등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주저, 시선회피, 몸 움직임 등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먼저,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단서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둘째,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들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또한, 위에서 밝혀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객관적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거짓말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오류를 발생시키는 잘못된 판단근거, 즉 잘못된 주관적 지표들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21개의 언어 및 비언어적 단서들 중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평정을 받은 단서는 5개(답변지연시간, 말을 더듬는 정도, 말멈춤, 시선회피, 머리 움직임) 밖

에 없었고, 이 단서 모두가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낮은 이해득실 상황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모두 +점수로 이해득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불안 행동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이해득실 상황은 정서적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불안 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것이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통제 가설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비언어적 행동 단서들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이해득실 상황을 구분하지 않았던 Zuckerman, Koestner, 그리고 Diver(1981)의 메타분석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높고 낮은 이해득실 상황을 구분하여 주관적 지표를 알아 보았던 Taylor와 Vrij(2000)의 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언어적 단서에 있어서는 Taylor와 Vrij(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ylor 등(2000)에 의하면, 언어적 단서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은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정서가설이 예측한 바와 같이, 불안함을 나타내는 반응들(예;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함, 자세히 말하지 못함 등)이 나타나며,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인지적 가설이 예측한 바와 같이 신뢰성을 높이는 쪽(예; 논리정연하게 말함, 자세히 말함)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득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신뢰성을 높이려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거짓말 단서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전체 21개 단서들

중 답변지연시간, 말주저, 말실수, 눈깜박임, 손/손가락 움직임, 발/다리 움직임, 부연설명동작, 논리정연하게 말하기 등 8개 단서에서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리정연하게 말하기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외 다른 모든 단서는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모든 단서에서 증가·감소의 양은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에 서로 상반된 평가, 즉 거짓말의 단서행동이 평상시보다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늘어난다는 평가를 했던 경우는 없었고, 모두가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불안행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그 정도에 있어서만 일부 단서들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 집단 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거짓말 탐지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에 매우 유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조은경 등, 2005; Akehurst, et al., 1996; DePaulo, et al., 2003; Strömwall & Granhag, 2003; Vrij & Semin, 1996).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실제 거짓말 할 때 나타나는 객관적 지표를 비교한 결과, 말주저, 시선회피, 몸 움직임 등의 3개 단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단서들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소리 크기, 눈깜박임, 부연 설명동작 등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김시업 등(2005)의 객관적 지표와 정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다리 움직임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DePaulo 등(2003)의 범죄 상황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목소리 크기, 눈깜박임, 부연 설명동작, 발/다리 움직임 등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 이해득실 상황은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해득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가 차이가 없이 매우 비슷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언어적 단서는 신뢰성을 나타내는 반응(인지적 가설)을 나타내며, 비언어적 단서는 불안함을 나타내는 반응(정서적 가설)이 나타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집단간 차이가 없이 매우 유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주관적 지표를 토대로 상대방의 거짓말 여부를 탐지할 경우 매우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해득실의 각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평상시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질문하여 그 평정에 따라 주관적 지표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진실을 말할 때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거짓말을 할 때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평정하는 데 있어 그 비교기준을 평상시로 삼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진실을 말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이해득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모두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최근 김시업 등(2005)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이해득실 상황인 실제 사건(군부대의 음주사건)에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거짓말 탐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집단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본 연구에서는 평상시)과 사건과 관련된 질문 간에 답변지연 시간이 짧아지는 비언어적 단서들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며, 이 점에 대한 많은 추후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남녀 성별에 있어서 매우 편포된 상태에서 이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남녀 성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나 객관적 지표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편포된 성별 자료를 분석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의 분포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신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거

짓말에 대한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 이해득실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과 기존의 거짓말 탐지 연구에서처럼 거짓말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를 비교하기 보다는 평상시(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한)와 거짓말을 할 때를 비교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세련되고 치밀한 추후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특징을 통한 거짓말 탐지 분야가 매우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시업, 전우병, 김경하, 김미영, 전충현 (2005). 용의자의 거짓말 탐지를 위한 비언어적 단서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19(1), 151-162.
- 김시업, 전우병, 김경하, 전충현 (2005). 수사현장에서 용의자의 비언어적 행동단서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연구. 2005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48-57.
- 조은경, 이미선, 김재홍 (2005). 거짓말의 특징에 대한 신념-경찰관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19(1), 185-198.
- Akehurst, L., Köhnken, G., Vrij, A., & Bull, R. (1996). Lay persons' and police officers' beliefs regarding deceptive behaviou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0, 461-471.
- DePaulo, B. M., & Pfeifer, R. L. (1986). On-the-job experience and skill at detecting decep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249-267.
- DePaulo, B. M., & Kirkendol, S. E. (1989). The motivational impairment effect in the communication of deception. In M., Lakhani, R., Taylor (2003). Beliefs about the cues to deception in high- and low-stake situations. *Psychology, Crime & Law*, 9(4), 357-368.
- DePaulo, B. M., Kirkendol, S. E., Tang, J., & O'Brien, T. P. (1988). The motivational impairment effect in the communication of deception: replications and extens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ur*, 12, 177-202.
- DePaulo, B. M., Lanier, K., & Davis, T. (1983). Detecting the deceit of the motivated lia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96-1103.
- DePaulo, B. M., Lindsay, J. J., Malone, B. E., Muhlenbruck, L., Charlton, K., & Cooper, H. (2003). Cues to decep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74-118.
- Einhorn, H. J. (1982). Learning from experience and suboptimal rules in decision making. In P.A. Granhag, L.O. Andersson, L.A. Strömwall & M. Hartwig (2004). Imprisoned knowledge: Criminals' beliefs about decepti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03-119.
- Ekman, P. (1988). Lying and non-verbal behaviour: Theoretical issues and new finding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ur*, 12, 163-176.
- Ekman, P. (1992). *Telling lies*, New York, NJ: W.W. Norton.
- Ekman, P., & O'Sullivan, M. (1991). How can catch a liar? *American Psychologist*, 46, 913-920.

- Fiedler, K., & Walka, I. (1993). Training lie detectors to use non-verbal cues instead of global heuristic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 199-223.
- Frank, M. G., & Ekman, P. (1997). The ability to detect deceit generalises across different types of high-stake l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429-1439.
- Goldman-Eisler, F. (1968). Psycholinguistics: Experiments in Spontaneous Speech. In M., Lakhani, R., Taylor (2003). Beliefs about the cues to deception in high- and low-stake situations. *Psychology, Crime & Law, 9*(4), 357-368.
- Gordon, R. A., Baxter, J. C., Rozelle, R. M., & Druckman, D. (1987). Expectations of honest, evasive and deceptive non-verbal behaviou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7*, 213-233.
- Granhag, P. A., Andersson, L. O., Strömwall, L. A., & Hartwig, M. (2004). Imprisoned knowledge: Criminals' beliefs about decepti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03-119.
- Köhnken, G. (1989). Behavioural correlates of statement credibility. In M., Lakhani, R., Taylor (2003). Beliefs about the cues to deception in high- and low-stake situations. *Psychology, Crime & Law, 9*(4), 357-368.
- Kraut, R. E. (1980). Humans as lie detectors: some second thought. *Journal of Communication, 30*, 209-216.
- Lakhani, M., & Taylor, R. (2003). Beliefs about the cues to deception in high- and low-stake situations. *Psychology, Crime & Law, 9*(4), 357-368.
- Porter, A., Woodworth, M., & Birt, A. R. (2000). Truth, lies and videotape: An investigation of the ability of federal parole officers to detect deception. *Law and Human Behavior, 24*, 643-658.
- Rand Corporation. (1975).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Vols 1-3. Rand Corporation Technical Report R-1777_DOJ. Santa Monica.
- Strömwall, L. A., & Granhag, P. A. (2003). How to detect deception? Arresting the beliefs of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Psychology, Crime and Law, 9*, 19-36.
- Taylor, R., & Vrij, A. (2000). The effects of varying stake and cognitive complexity on beliefs about the cues to de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3*, 111-123.
- Vrij, A. (1995). Behavioural correlates of deception in simulated police interview. *Journal of Psychology, 129*, 15-29.
-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The psychology of lying and its implic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 Vrij, A., & Semin, G.R. (1996). Lie experts' beliefs about non-verbal indicators of decep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ur, 20*, 65-80.
- Vrij, A., Semin, G. R., & Bull, R. (1996). Insight into behaviour displayed during decep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544-562.
- Vrij, A., & Taylor, R. (2003). Police officer's and students' beliefs about telling and detecting trivial and serious 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1), 41-49.

전우병 · 김시업 / 이해득실 상황에 따른 거짓말 탐지에 대한 주관적 지표 - 대학생, 교도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

Zuckerman, M., Koestner, R., & Driver, R. E.
(1981). Beliefs about cues associated with
decep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ur*, 6,
106-114.

1차 원고 접수일 : 2005. 8. 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9. 28

Su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 Detection in High/Low Stake Situations: Comparis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Prison Officers and Prisoners

Woo Byoung Jhon

Si Up Kim

Kyonggi University

Purposes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 What differences do su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 detection according to high and low stake situations? Does groups difference appear in beliefs about deception cues? Is what differences between objective indicators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university students, prison officers, prisoners.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cerning beliefs about 21 verbal and nonverbal behaviours in high/low-stake situations. For each behaviour, they were asked to rate on a seven-point scale how are these behaviours changed comparing to normal times. The results were that su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 were no differences between high-stake and low-stake situations, and no differences among groups. Also, it appeared that the su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 we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objective indicators of deception.

key words : *deception detection cues, subjective indicators, objective indicators*